

Weekly Quanticle

롤러코스 '피'

또 한번의 급락과 반등

- 6/8일 KOSPI는 -8.3% 급락한 7,484pt로 마감, 올해 세 번째 서킷브레이커 발동. 미국 고용 서프라이즈로 인한 금리 인상 우려와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가 겹친 결과로 해석
- 다만 이러한 우려는 빠르게 해소. 6/9일 +8.2% 상승하는 과정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고, 결국 8,000선을 재탈환. 전일 낙폭이 컸던 반도체, IT하드웨어 업종이 반등을 주도
- 6/5일과 6/8일 2거래일간 한국의 낙폭은 주요국 중 최대 수준. 글로벌 전반의 약세였으나 한국이 유독 강하게 조정된 것도 사실

펀더멘털은 건조, P/E는 다시 8배 하향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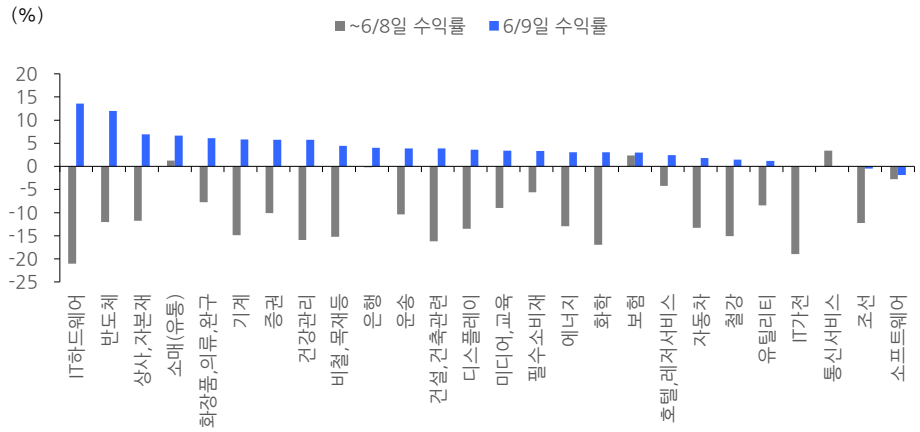
- KOSPI 선행 영업이익은 우상향이 지속되고 있으며, 반도체를 제외해도 이익 흐름은 건조
- 12m fwd. P/E는 다시 8배를 하향 돌파(7.71배). 다만 삼성전자·하이닉스 제외 시 P/E는 12.3 배로, 지수 P/E의 낮은 레벨 역시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음
- 급락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 훼손은 확인되지 않음. 심리 및 수급 성격으로 해석되는 조정
- KOSPI 60일 이격도는 110을 상회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낙폭과대 컨셉의 유효성이 확인되는 국면은 아니라는 판단
- 실제로 모멘텀 대비 낙폭과대 스타일이 단기 우위 국면에 있으나 KOSPI 대비 언더퍼폼 중
- 증시와 관련된 또 하나의 우려 사항은 외국인의 지속된 순매도. 2026년 이후 누적 120조원을 순매도 중인 외국인
- 긍정적인 부분은 지수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의 순매도세는 과거 추세 대비 강하지 않다는 점
- 다만 6월에도 외국인 수급 환경은 중립 이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음. 1,550원 부근에 위치한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수급에 부담 요인. 또한, 통상적으로 외국인은 '분기말 매도 & 분기초 매수'의 패턴을 따라왔음을 참고할 필요

여전히 유효한 모멘텀 장세, 실적에서 찾는 기회

- 급락 후 빠른 회복 속도나, 과거 서킷브레이커 이후 통상적인 지수의 회복 경로는 여전히 지수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
- 따라서 현 시장은 여전히 펀더멘털 중심의 모멘텀 장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
- 1분기 실적시즌 결과를 활용한 스크리닝 전략을 제시.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현 국면에서, 1분기 이익만으로 지난해 연간 이익을 넘어선 종목들을 스크리닝 아이디어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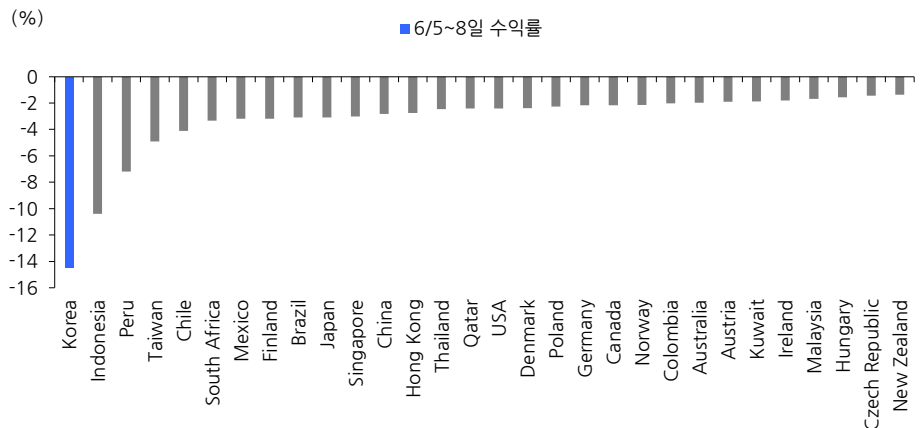
Quant 조창민 chocm@hmsec.com

<그림 1> 급락을 딛고 일어난 한국 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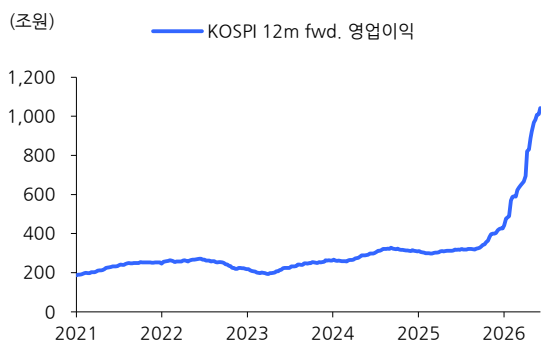
자료: FnGuide Quantwise, 현대차증권
주: W126 기준

<그림 2> 글로벌 전반의 약세였지만, 한국의 낙폭이 유독 강했던 것도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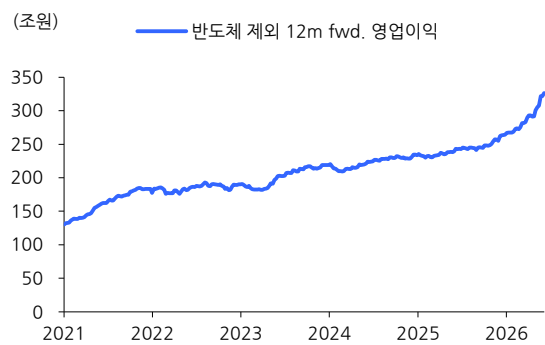
자료: FactSet, 현대차증권

<그림 3>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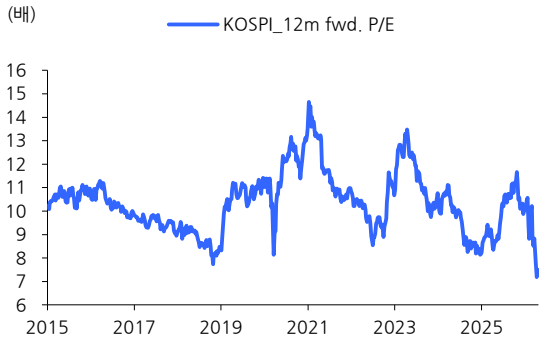
자료: FnGuide Quantwise, 현대차증권

<그림 4> 반도체 제외해도 긍정적인 환경



자료: FnGuide Quantwise, 현대차증권

<그림 5> 다시 8배를 하향 돌파한 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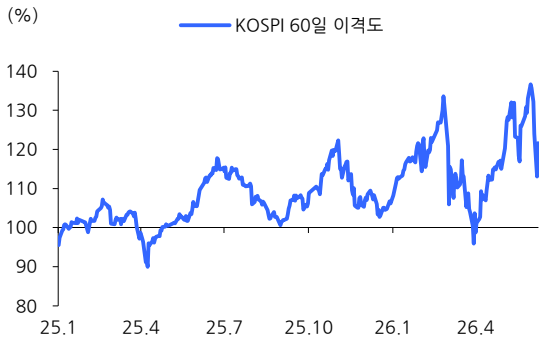
자료: FnGuide Quantwise, 현대차증권

<그림 6>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외 P/E는 12.3배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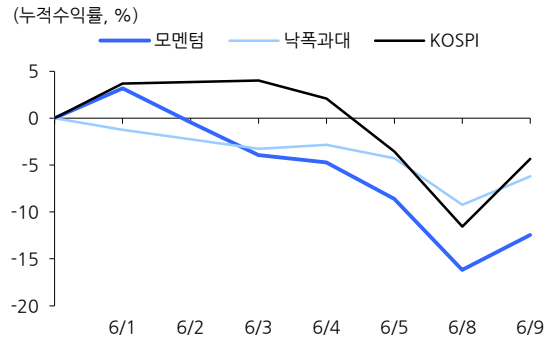
자료: FnGuide Quantwise, 현대차증권

<그림 7> KOSPI 이격도는 여전히 110 상회



자료: FnGuide Quantwise, 현대차증권

<그림 8> 낙폭과대 컨셉이 유효한 국면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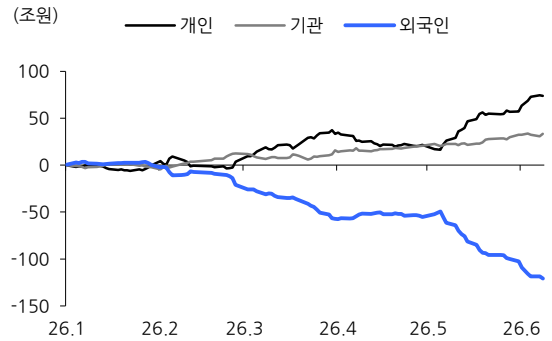
자료: FnGuide Quantwise, 현대차증권

<그림 9> 원/달러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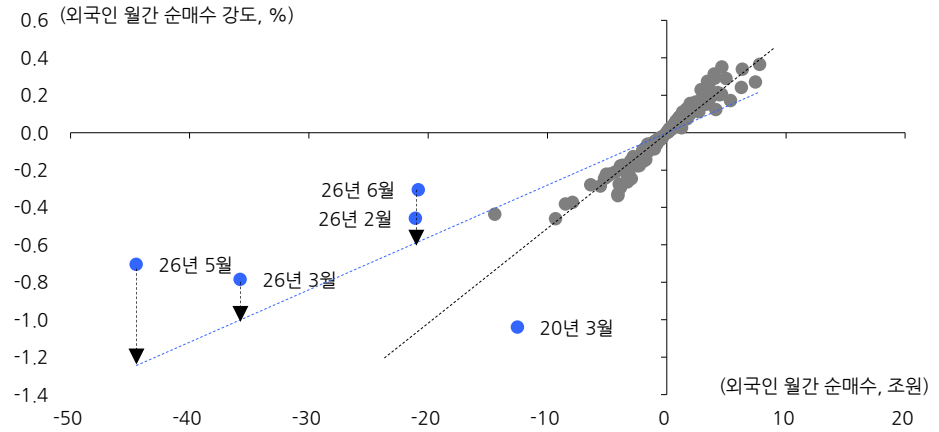
자료: FnGuide Quantwise, 현대차증권

<그림 10> 외국인 26년 순매도 120조원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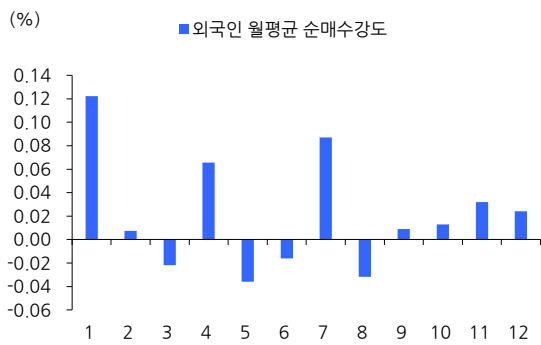
자료: FnGuide Quantwise, 현대차증권

<그림 11> 시가총액 대비로는 순매도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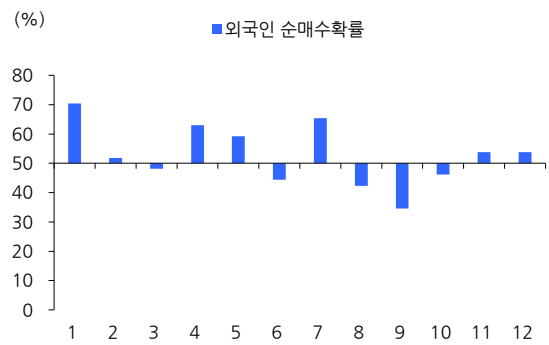
자료: FnGuide Quantwise, 현대차증권

<그림 12> 외국인은 분기말 매도 & 분기초 매수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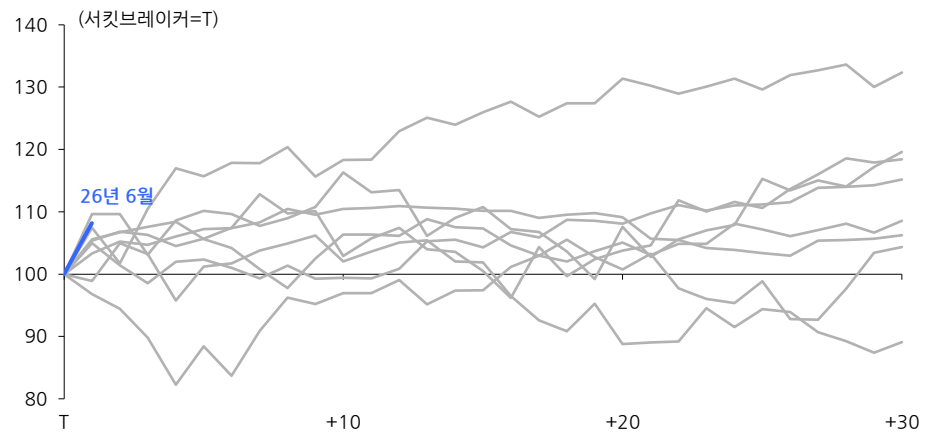
자료: FnGuide Quantwise, 현대차증권

<그림 13> 다만 추가적인 순매도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



자료: FnGuide Quantwise, 현대차증권

<그림 14> 서킷브레이커 발동 이후 지수의 회복 확률 높음



자료: FnGuide Quantwise, 현대차증권

〈표 1〉 펀더멘털 종목 스크리닝 - 1분기만에 지난해 연간 이익을 넘어선 기업

코드	종목	구분	섹터	시가총액(억원)	영업이익 (억원)			전망치 변화(3월말 대비, %)		
					2024년	2025년	26년1분기	26년2분기	2026년	
A096770	SK 이노베이션	KS	에너지	176,829	633	-2,699	20,832	219.4	165.5	
A012620	삼성에프스홀딩스	KS	건강관리	100,901	-	-636	905	-31.0	5.1	
A047040	대우건설	KS	건설,건축관련	83,825	4,031	-8,154	2,556	15.7	29.5	
A180640	한진칼	KS	운송	69,900	492	-75	130	-	-	
A009830	한화솔루션	KS	에너지	59,733	-3,002	-3,648	926	63.1	21.0	
A440110	파두	KQ	반도체	53,403	-950	-655	77	-	-	
A066970	엘앤에프	KS	IT 가전	50,548	-5,587	-1,569	1,173	49.1	74.1	
A010060	OCI 홀딩스	KS	화학	49,103	1,015	-576	109	48.2	7.4	
A450080	에코프로머티	KS	IT 가전	35,247	-647	-654	157	-	-	
A011170	롯데케미칼	KS	화학	31,440	-9,145	-9,431	735	-	-	
A263750	풀어비스	KQ	소프트웨어	24,735	-123	-148	2,121	59.8	73.0	
A131970	두산테스나	KQ	반도체	23,212	379	-9	55	-23.9	-11.2	
A005930	삼성전자	KS	반도체	17,275,753	327,260	436,011	572,328	78.5	78.6	
A034730	SK	KS	에너지	414,715	21,036	10,998	35,942	96.6	72.3	
A010950	S-Oil	KS	에너지	122,152	4,222	2,356	12,311	134.9	92.6	
A353200	대덕전자	KS	IT 하드웨어	69,035	113	491	513	27.3	27.9	
A267270	HD 건설기계	KS	기계	63,640	1,904	1,709	1,907	9.4	9.5	
A036570	NC	KS	소프트웨어	57,523	-1,092	161	1,133	45.6	29.7	
A222800	심텍	KQ	IT 하드웨어	37,464	-470	119	137	31.6	19.2	
A080220	제주반도체	KQ	반도체	32,893	96	359	671	-	-	
A290650	엘앤씨바이오	KQ	건강관리	22,439	39	44	60	11.3	24.1	
A008770	호텔신라	KS	소매(유통)	20,213	-52	135	204	23.1	33.9	
A031330	에스에이엠티	KQ	IT 하드웨어	15,469	674	1,139	3,273	-	-	
A089970	브이엠	KQ	반도체	14,938	-86	247	301	36.6	34.5	

자료: FnGuide Quantwise, 현대차증권

주: 시가총액 1조원 이상, 1분기 영업이익 50억원 이상 종목 스크리닝

주2: 하늘색 하이라이트는 2025년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 종목군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 조창민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